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
(비공식 한국어 번역본)

2020년 5월 17일

“전세계 많은 성소수자는 여전히 낙인 찍히고 차별받는 냉혹한 현실 속에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는 한편, 곳곳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성소수자가 처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자명하게 드러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성소수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를 포함하여 더욱 심한 오명, 차별, 폭력에 자주 노출됩니다. 봉쇄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자신이 속한 가족에게조차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합니다. 일부 경우 코로나바이러스-19를 전파한다는 식의 희생양 취급까지 받습니다.”

“모두가 혐오에 맞서 대응하고, 성소수자가 고통 속에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침묵을 깨뜨리길 촉구합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태도와 발언은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성소수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도모하는 역할을 최전선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명과 차별이 여전한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동성 결혼 합법화부터 평등결혼, 성소수자 혐오 차별 금지 입법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 십 년간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가 현재 목도하듯이, 성과를 이루기 전으로 회귀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모두가 곳곳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두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끝

* [유엔 자유와 평등 캠페인](#)은 전세계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수용하도록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성소수자 공동체가 적대시되고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부모, 학생, 교사, 언론인 및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하며 평등을 쟁취하려는 투쟁에 있어 새로운 동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약 35개국에서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십여 개 이상의 국내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와 평등 캠페인의 일환으로 “침묵을 깨트리다”라는 주제의 [하위 캠페인](#)이 5월 14일 개시되어, 부당함에 저항하여 목소리를 내는 성소수자 공동체와 동지를 기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짧은 동영상(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준비되어 있으며, 더욱 평등한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은 미래의 동지들이 참고할만한 조언도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 및 언론 요청은 다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upert Colville* - + 41 22 917 9767 / rcolville@ohchr.org
- *Jeremy Laurence* - + 41 22 917 9383 / jlaurence@ohchr.org
- *Liz Throssell* - + 41 22 917 9296 / ethrossell@ohchr.org
- *Marta Hurtado* - + 41 22 917 9466 / mhurtado@ohchr.org

소셜미디어 계정 및 공유 -트위터: [@UNHumanRights](#), 페이스북: [unitednationshumanrights](#)

